

2010

꿈나무작가 공모전 수상 작품집



태백문화원

후원 |



태백시



태백시의회



태백교육청



2010

꿈나무작가공보전
수상작품집



태백문화원

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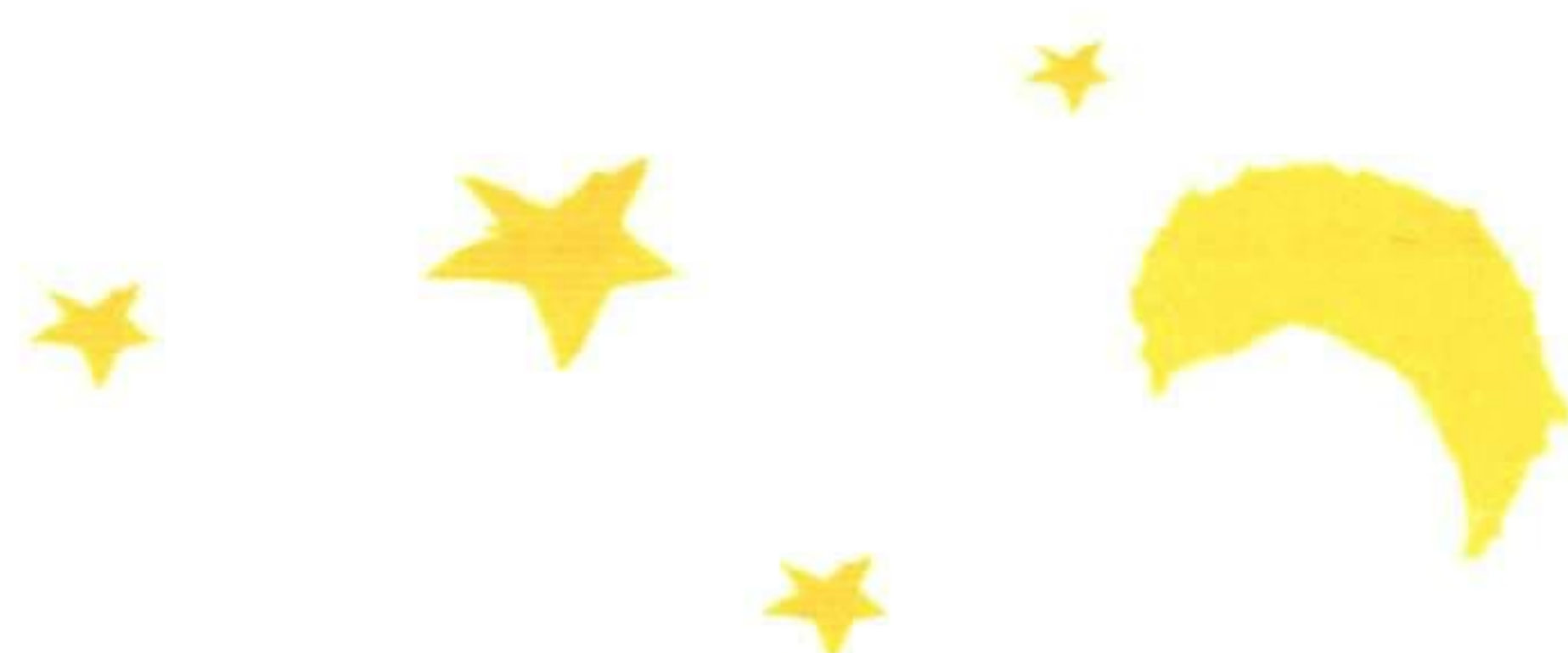
태백시



태백시의회



태백교육청



태백문화원장
김강산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은 우리들에게 많은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이제 그만큼 더 풍성한 결실로 다가 올 것입니다.

이번의 꿈나무작가공모전은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얻고자 하는 모두의 바람을 담아 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을 가득 담은 작품들로 펴내는 이 책은 모든 어른들의 거울이 될 것이며, 아이들에겐 내일을 여는 희망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아이들이 원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어른들은 무한한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할 때 이 공모전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인 아이들이 더 아름답고, 더 맑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꿈나무작가공모전은 계속 이어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각 계의 지원에 힘입어 명실 공히 꿈나무들의 작가등용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애써주신 태백교육지원청의 신준택 교육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출품한 학생들과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축사



태백교육지원청장
신준택

나날이 푸르러 가는 높은 가을 하늘!

한낮의 따가운 햇살에 저마다의 마지막 결실을 서두르며 새로운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는 9월을 맞이하여 「2010 꿈나무작가공모전」에 참가한 124명의 모든 학생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수상한 모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매년 꿈나무작가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에게 글 쓰는 문화를 장려해 주신 태백문화원 김강산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문학은 울고 웃고 부대끼는 우리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당대의 역사와 시대를 생생히 알 수 있게 해 주며, 진정한 삶에 관해 성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실을 바라보고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고 글로 쓰며, 그림으로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말과 글, 그림으로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공헌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나타낼 줄 아는 표현력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글쓰기는 모든 교육활동의 기본이면서도 핵심요소이며 창의적 사고활동의 기본으로서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수요소이기도 합니다.

미래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하는 가운데서 글쓰기를 통하여 남다른 창의성을 발휘하는 모습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영역에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것이기에 자랑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2010 꿈나무작가공모전」을 통해서 태백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태백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단을 더욱 풍요롭게 할 미래의 작가들을 배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발간사 / 태백문화원장 김강산	2
축사 /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준택	3

■ 초등부 저학년

| 대상 |

고마운 친구 태백산 / 황지초등학교 2-5 이유림	9
-----------------------------------	---

| 최우수상 |

태백산에 다녀와서 / 황지중앙초등학교 1-2 이다솜	10
------------------------------------	----

| 우수상 |

축제의 도시 태백 / 황지초등학교 2-5 정예림	11
우리 학교 / 삼성초등학교 1학년 김소현	12

| 장려상 |

공기 맑은 우리 태백 / 삼성초등학교 3학년 이현호	13
태백이 좋아요 / 황지초등학교 3-2 이재혁	14
통리 5일장 / 황지초등학교 2-2 권영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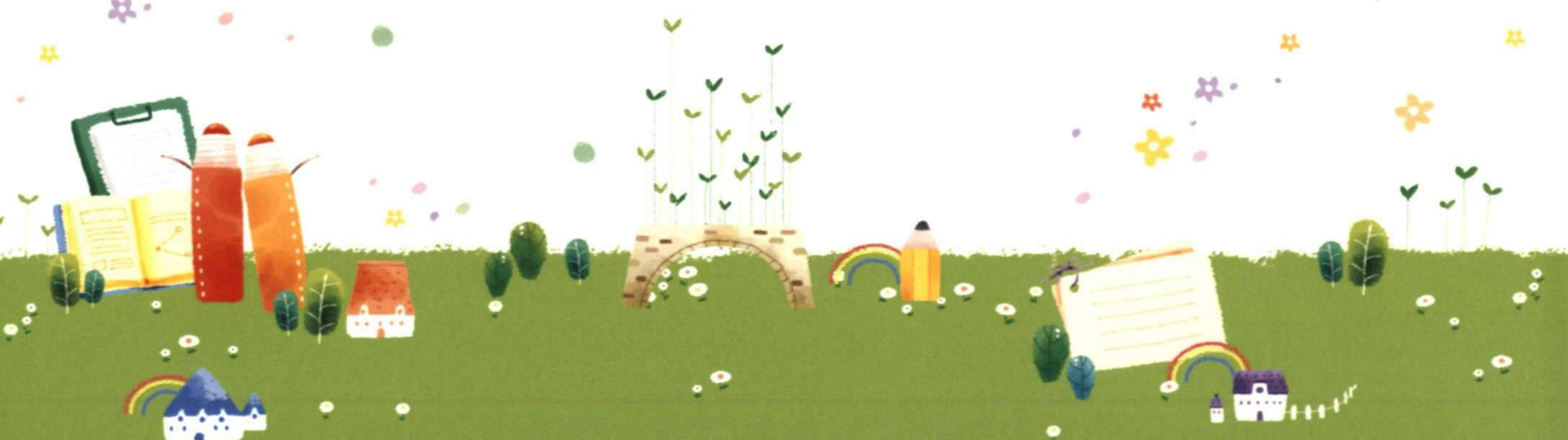
■ 초등부 고학년

| 대상 |

재미있는 통리 장터 / 황지초등학교 4-4 양규성	19
-----------------------------------	----

| 최우수상 |

빛나는 태백 / 통리초등학교 6-1 엄예린	20
-------------------------------	----



| 우수상 |

다섯 갈래 길에 두 언덕 / 황지중앙초등학교 5-2 강태욱	21
정다운 통리 5일장 / 통리초등학교 4-1 김건영	23

| 장려상 |

맑고 맑은 우리 학교 / 통리초등학교 6-1 조아영	24
태 백 산 / 황지초등학교 6-2 김지용	25
행복이 가득한 우리학교 / 삼성초등학교 5학년 김영기	27

■ 중등부

| 최우수상 |

나의 추억이 가득한 곳, 재래시장 / 상장중학교 1-3 홍수연	31
--	----

| 우수상 |

친구를 만들어 준 소중한 태백 / 상장중학교 3-2 이지현	33
--	----

| 장려상 |

I Love Taebaek / 상장중학교 3-2 김효정	36
우리 집 / 태백중학교 2학년 조재웅	39

■ 고등부

| 우수상 |

자랑스러운 태백의 아버지, 광부 / 장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손선진	43
--	----

| 장려상 |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태백을 소개합니다. / 장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미영	44
더 위 / 장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배선아	46
초여름의 편지 / 장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6반 이서원	47



A whimsical illustration featuring a large, bright yellow sun as a central play area. Several small, stylized figures of children are depicted in various playful poses: one is hanging upside down from the top of the sun, another is climbing the left side, a third is on the right, and a fourth is at the bottom. A ladder is positioned at the base of the sun, with a child climbing it. The background consists of tall, thin, yellow grass-like stalks, and the foreground shows a dark, textured ground with some small plants. The overall style is soft and painterly, with a warm, golden-yellow color palette.

초등부 저학년



고마운 친구 태백산

황지초등학교 2-5

이 유 림

오늘은 학교에서 태백산 등반이 날이다.

나는 태백산을 오르기도 전에 전학 간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었다.

시원한 시냇물 소리와 살랑대는 나뭇잎들을 가까이서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을 오르는데 옆에서 팔랑대는 나비의 날개짓만큼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다.

한참 가다말고 ‘후우’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아침에 허겁지겁 먹은 김밥이 기분 좋게 내려가는 것 같았다.

땀땀 땀이 흐르고 힘은 들지만 맑은 숨을 들이마시니 기분은 무척 상쾌했다.

강릉에 사시는 우리 할머니는 더위를 무척 타시는데 더운 날이면 에어컨을 틀어서 땀을 닦아내신다. 문득 이 시원한 공기와 자연바람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시원하고 푸르른 숲에 둘러싸이니 태백산이 나한테 잘 왔다고 손짓해 주는 것 같았다.

반재에 도착하니 나는 꽃처럼 몸을 펼쳐보고 싶었다.

산아!, 산아! 나 한번만 내 몸을 펼쳐보면 안될까?

맑은 공기와 초록빛, 자주빛 조명들을 환하게 밝혀주니까 고마워서 너를 꼭 안아주고 싶어서 그래.

산아! 사랑을 베풀어 주고 가르쳐줘서 고마워.

언제나 우리 동네 태백을 지켜주는 우뚝 솟은 네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



태백산에 다녀와서

황지중앙초등학교 1-2
이 다 솜

2010년 6월 9일 수요일 드디어 태백산에 가는 날이 되었다.
 엄마가 김밥과 과자를 싸 주셨다.
 예린이와 짝이 되었다.
 그런데 예린이가 먼저 가서 정우랑 같이 올라갔다.
 계단이 많아서 힘들었다. 올라가는 길에 큰 나무가 많았다.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철쭉과 개나리도 피어 있었다.
 민진이와 함께 천제단에 도착했다. 기분이 좋고, 상쾌했다.
 천제단은 돌로 쌓여 있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내려 올 때는 너무 가파르고 돌이 많아서 자꾸만 넘어졌다.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키가 작았는데 내려올수록 점점 많아지면서 키가 컸다.
 꼭대기는 너무 춥고 바람이 세서 나무가 못자란다고 한다.
 너무 늦게 내려와서 아이스크림을 못 먹을 뻔 했는데 더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다.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다.
 태백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가파른 산 같다.
 다음에 다시오면 더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축제의 도시 태백

황지초등학교 2-5
정 예 립

난 내가 살고 있는 태백이 참 좋아요.

따뜻한 봄이 되면 예쁜 꽃들과 산나물 축제가 엄마와 할머니를 기쁘게 하고요.

또, 해마다 열리는 철쭉제와 눈축제, 해바라기 축제는 오빠와 나를 즐겁게 하거든요.

시원한 여름이 되면 흠뻑 땀 흘려서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어서 난 태백에서 지내는 여름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정말 에어컨을 켜 것처럼 시원하고 모기약을 쓰지 않아도 모기에 물리지 않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겨울에는 눈도 많이 와서 아빠와 오빠와 함께 눈썰매와 스키를 신나게 탈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야호! 곧 있으면 신나는 여름방학이에요.

올해도 친척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 거예요.

매일 매일이 축제인 공기 좋은 태백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학교

삼성초등학교 1학년
김 소 현

학교 도서관에는 책이 많아요.
읽어도 읽어도 못 읽은 책이 있어요.

미끄럼, 그네, 철봉, 모래밭
놀아도 놀아도 재미있어요.

벚꽃, 진달래, 아카시아, 꽃잔디
피어도 피어도 또 피는 예쁜 꽃

친구들 언니들 오빠들 선생님
모두 모두 한 가족 같은 우리학교





공기 맑은 우리 태백

삼성초등학교 3학년
이 현 호

나는 태백에 오자마자 공기가 맑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알았냐면 오자마자 공기가 시원한 느낌도 들었기 때문이다. 또 내가 강릉에 있을 때는 비염이 심했는데 태백에 오니 갑자기 코가 ‘훅~’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었더니 맑은 공기가 확 들어왔다. 산이 많고 나무가 많이 보이니 밖에 나가 맑은 공기를 들이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빨리 태백에서 유명한 고랭지 배추도 먹고 싶고... 생각만 해도 정말 폭 빠져 들 것 같았다.

그래서 온지 며칠 지나지 않아 태백산을 올랐다. 얼마나 공기가 맑은지 알고 싶어서 힘들게 올라갔다. 직접 태백산 정상에 올라가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마셔보니 정말 상쾌했다. 완전히 천국에 온 줄 알았다. 그 후로 태백산이 정말 좋아졌고 자주 가고 싶어졌다. 그래서 외삼촌이랑 또 태백산을 갔다. 역시나 공기가 정말 좋았다. 그 다음에는 아빠와 한강의 발원지라는 검룡소에 갔다. 거기에는 나무가 많고 공기가 좋았다. 골짜기까지 들어가니 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얼마나 공기가 좋으면 고여 있는 물도 이렇게 깨끗할까?’ 생각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고여 있는데도 물이 솟아오른다는 점이다.

나는 이렇게 공기가 좋은 태백에서 살고 있어서 행복하다.

태백이 좋아요

황지초등학교 3-2
이 재 혁

봄에는 산에 들에
예쁜 꽃이 피어요.

철쭉꽃이 피어서
철쭉 축제도 하구요.

여름에는 모기가 없고
시원해서 좋아요.

가을에는 시원한 바람과
단풍이 예뻐서 좋아요.

겨울에는 흰눈이 와서
스키도 타고 눈싸움도 해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태백이 제일 좋아요.



통리 5일장

황지초등학교 2-2
권 영 주

오늘은 오일장 가는 날
평소에 못 보던 것
많이 보지요.

쭈글쭈글 할머니가
파는 붕어빵
'핑' 하고 터지는
빵과자
'후후' 따끈한
불고기 맛 꼬치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마음은 훨훨 날아가지요.

오일장에 가면
배가 불룩
장바구니도 불룩



초등부 고학년





재미있는 통리 장터

황지초등학교 4-4
양 규 성

덩치 큰 아저씨
슬퍼하는 목소리로
“생선 사세요,
이거 다 팔아야 집에 갈 수 있어요.”

텃밭에서 키운
무지개 빛 싱싱한 야채
다정하게 파시는 할머니

검정 비닐 속에
아저씨 마음, 할머니 마음
가득 담고
맛난 저녁상 차리러 가시는
어머니.



빛나는 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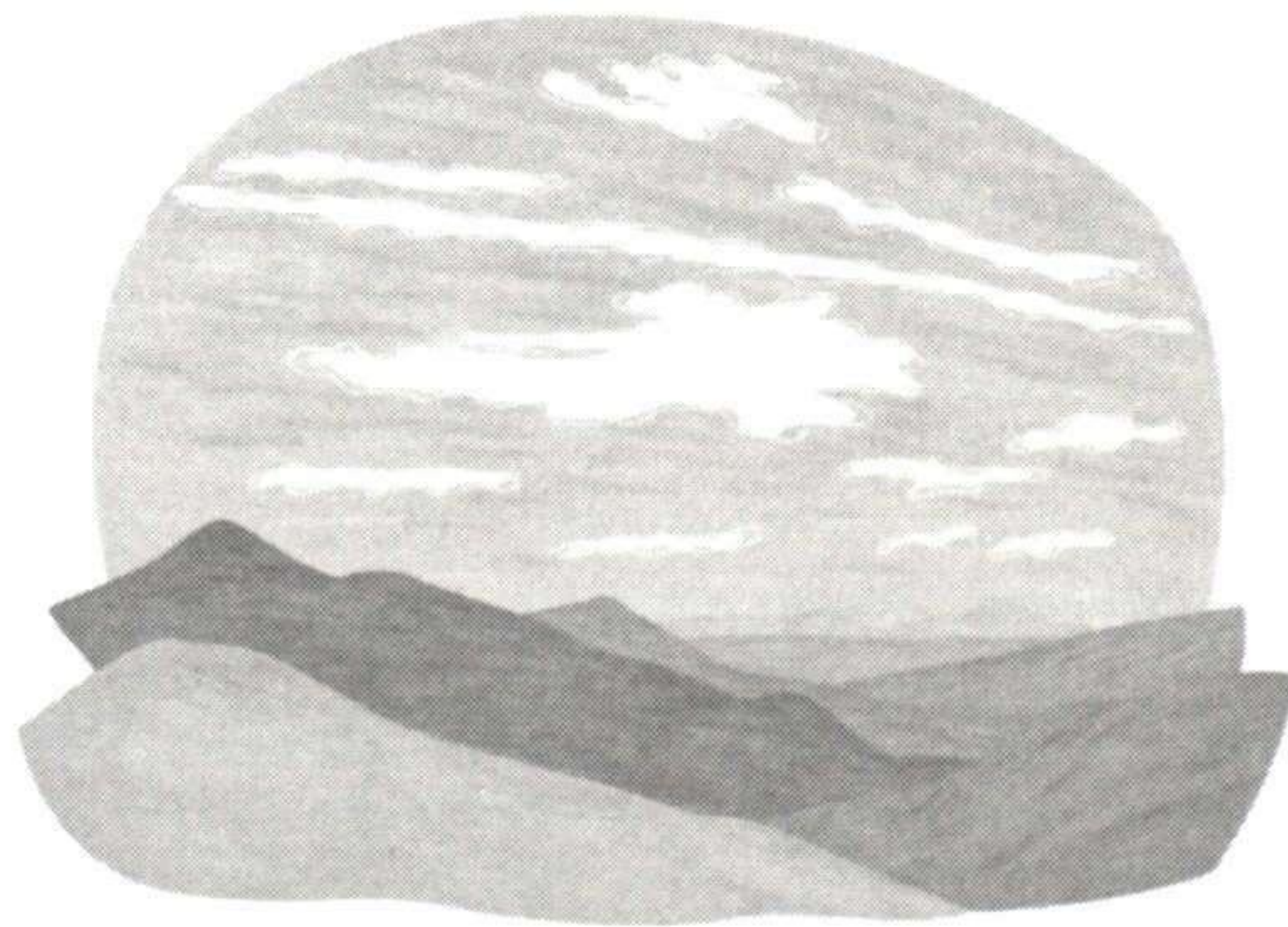
통리초등학교 6-1
엄 예 린

검룡소와 황지연못이 있어
빛나는 태백.
발원지가 있어서 물이
맑나봐.

태백산이 있어서
자랑스러운 태백.
산이 많아서 공기가
맑나봐.

엄마처럼 부드러운
태백 강들의 발원지들.

장군처럼 우뚝 서 있는
태백의 태백산.





다섯 갈래 길에 두 언덕

황지중앙초등학교 5-2

강 태 욱

작년 여름방학에 인천에 있는 이모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모기에게 물려 엄청 고생한 적이 있다. 내 다섯 손에 모기를 두 방이나 물린 것이었다. 나는 엄마에게 “엄마~ 다섯 갈래 길에 두 언덕이 생겼어요. 그것도 엄청 크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께서

“그러게, 예쁜 다섯 갈래 길에 높은 언덕이 생겼구나. 가만히 놔두면 언덕이 자꾸자꾸 낮아질테니, 굽지 말고 기다려 보렴.”

하고 대답해 주셨다.

그런데, 이 언덕!! 결코 만만한 놈이 아니었다. 퉁퉁 부어오르고 무척 가려웠는데 제대로 굽지도 못하고 어찌다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굽어버리면 화를 내는 것처럼 퉁! 퉁! 퉁! 심술궂게 부어오르는 것이었다. 결국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염증까지 생겨 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모기한테 물리면 조금 부풀고 마는데, 나는 알레르기 체질이라 고생을 많이 한다.

작년의 인천은 유독 비도 많이 내리지 않고, 무척 더웠다. 또한 그곳은 바다와 가까이 있어서인지 습기가 많아 끈적끈적 한게 바깥을 조금만 나가 있어도 짜증스럽고 밤마다 모기의 공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모기향에 불을 붙여 놓고도 안심이 안돼서 몸에 별로 좋지 않다는 흠키파를 뿌려대고 창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두 번 세 번 점검을 해야 했고, 그러다보니 더워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덥다고 이모가 틀어준 에어컨 바람은 시원하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

바람과 달라서 인지 시원함보다는 조금 추운 듯한 느낌이 들고, 상쾌한 느낌은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인천 사람들에게 다섯 갈래 길에 난 두 언덕을 구경 시켜주며 태백의 자량을 엄청나게 하고 다녔다.

“일단 태백은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서 모기를 보기가 힘들어요. 날씨가 덥다싶을 때 집에 가서 창문만 열고 있으면 상쾌한 공기가 솔~솔~, 그뿐인지 아세요? 한강, 낙동강 발원지가 모두 태백이라는거~!!”

이렇게 자량을 했더니 어른들께서는 나의 태백사랑이 대단하다며, 앞으로 여름휴가는 꼭 태백에서 보내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인천에서 며칠을 보내고 태백에 도착하니 상쾌하고 맑은 공기 냄새가 가슴을 정말 맑게 해 주어서 가슴이 뻥하고 내 가슴이 뚫리는 것만 같았다. 긴 시간동안 차를 몰고 태백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리신 아빠께선 너무 더위에 지치셨는지 휴~하는 한숨과 함께 정말 태백만한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여름엔 태백을 떠나선 어디서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이었다.

나 역시도 공포스런 모기에 시달리지 않고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는 태백이 좋다. 거기 에다가 이렇게 맑고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을 내 고장 태백 말고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 쿨 시네마를 보면서 오돌오돌 떨어본 우리 사촌형은 지금도 여름만 되면 태백을 오고 싶어 한다. 태백의 매력적인 여름 기후 때문에 운동선수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정도면 정말 가장 멋진 휴양지가 아니겠는가! 태백이 정말 사랑스럽다.

또 다시 여름이 다가온다. 올해에도 태백의 날씨 덕분에 내 다섯 갈래 길은 매끈매끈하게 남아있겠지. 앞으로도 내가 살고 있는 시원한 이 태백을 영원히 사랑해야겠다.



정다운 통리 5일장

통리초등학교 4-1

김 건 영

정다운 통리 5일장이 보람차게 시작되었다.

우리 동네 통리 5일장은 특이한 정가 재래시장이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장이 시작되면, 5일 지나고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는 달력의 '5' 자가 들어가면 시작한다.

통리 5일장에 물건을 파시는 장사꾼 분들은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물건을 파신다. 통리 5일장이 열리자마자 이미 거리는 서울의 명동 한복판과 유사하다.

여기저기서 자동차 경적소리가 울린다.

내가 단골로 먹는 음식은 붕어빵이다.

특히 붕어빵은 통팔이 가득 차있어 매우 맛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파는 곳도 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5천원'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왜 5천원 아줌마냐면, 고등어를 5천원에 파신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많다. 기르고 길 옆은 각종 동물들이 있다.

고슴도치, 앵무새, 펭, 닭, 공작, 햄스터, 강아지 기타 등등이 있다.

이곳 통리장은 언제나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아주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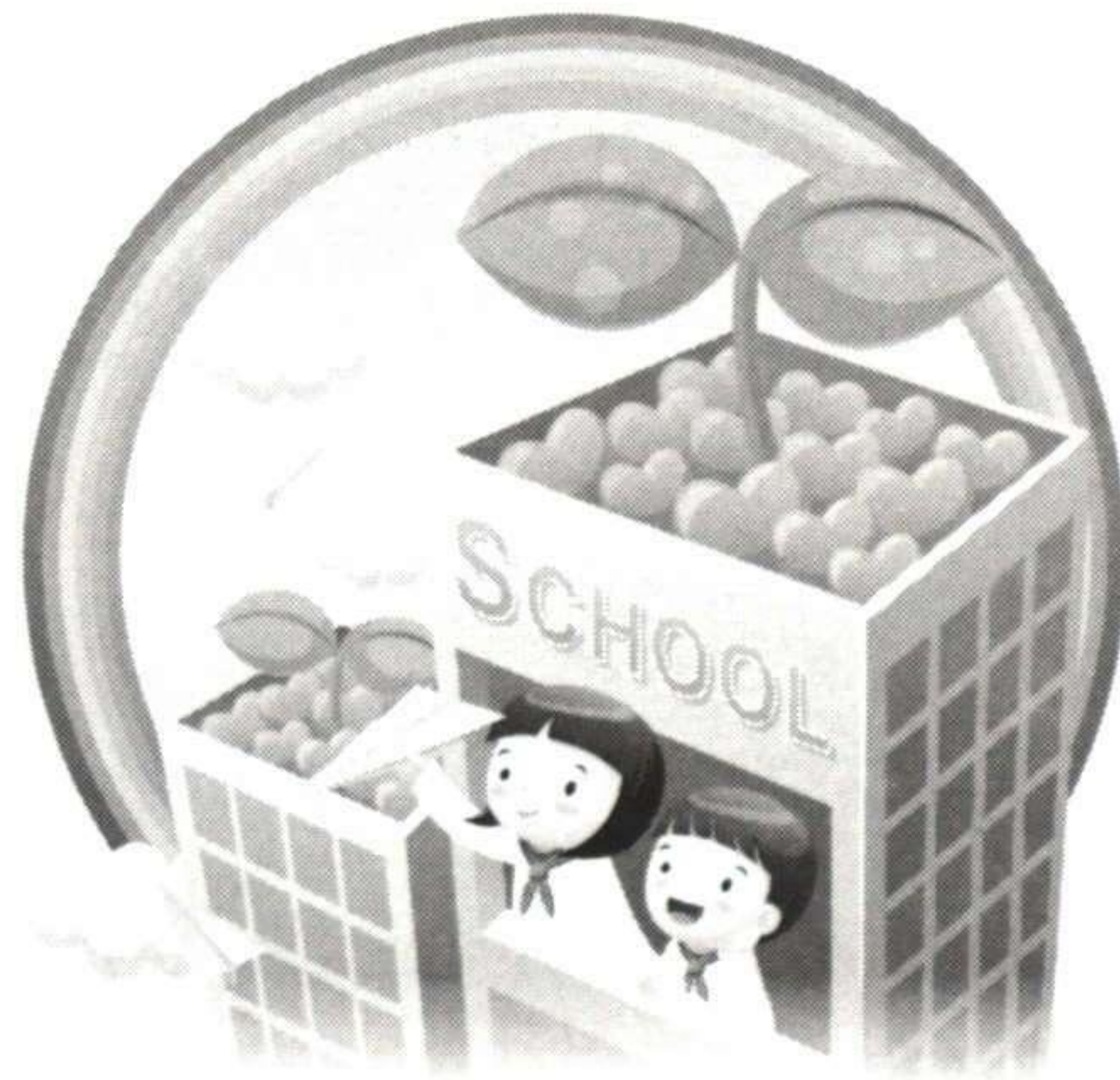
필요한 생활용품은 다 있는 통리장을 소개해 보았다.

맑고 맑은 우리 학교

통리초등학교 6-1
조 아 영

맑은공기 우리학교
창문열면 산이있고
꽃내음이 퍼져오네
천년만년 맑은학교

맑은소리 우리학교
수업하다 짹짹
새들소리 너무좋네
하루하루 맑은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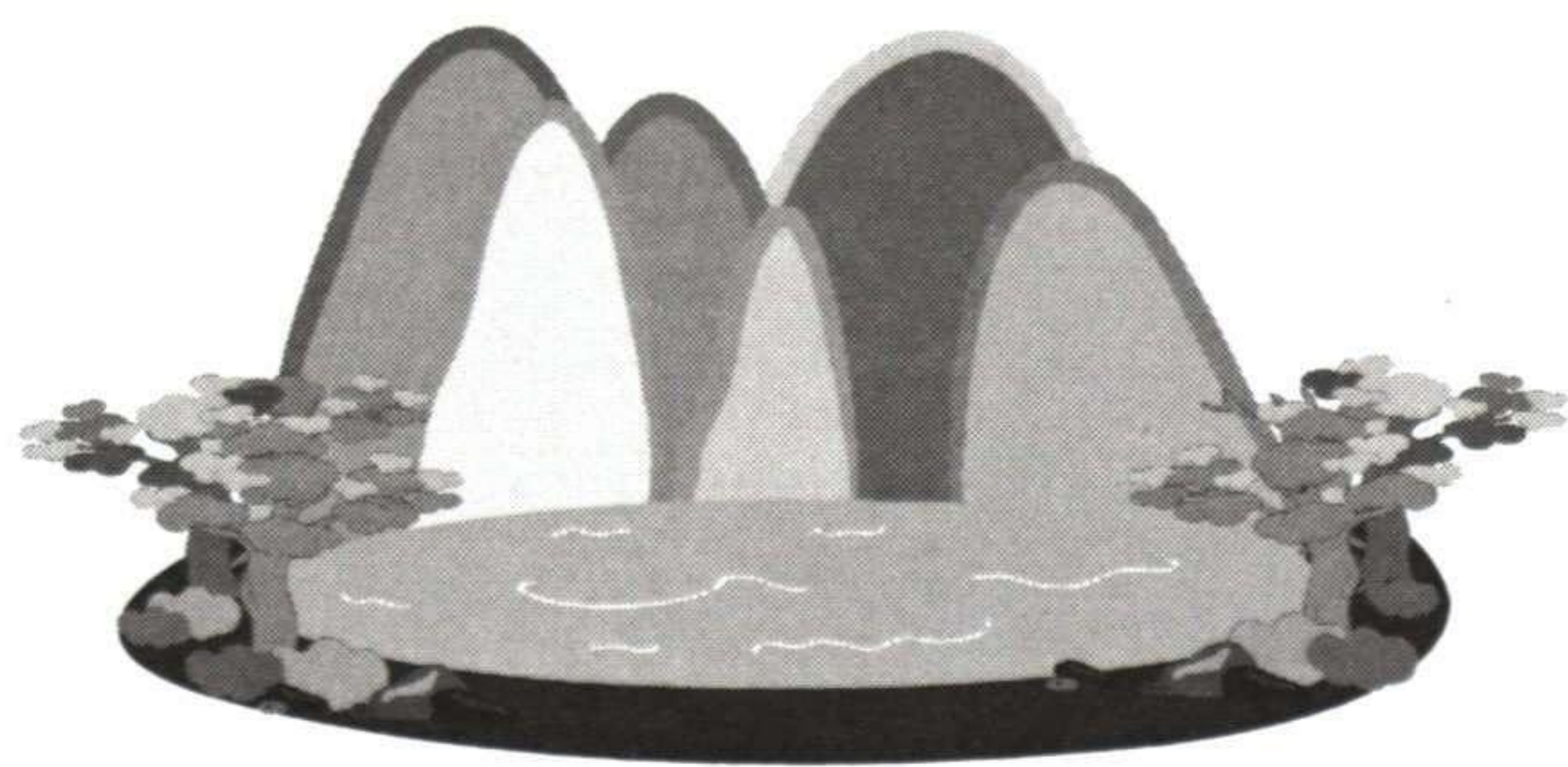


태백산

황지초등학교 6-2
김 지 용

쫄로롱, 쫄로롱
산새들이 노래하고,
줄줄줄
시냇물이 흘러가고
흔들 흔들
새싹들이 춤을 추고,
옛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태백산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주목과
맑고 깨끗한
공기와
곱디곱고, 아름다운
경치가
우리들을 부른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힘들어도,
산 아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태백산

그런 산 보며
우리는 높은 꿈과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행복이 가득한 우리학교

삼성초등학교 5학년
김 영 기

우리학교는 산속의 학교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학교

봄에는 벚꽃이 하얀 눈처럼 피고
아카시아 향기가 바람에 날린다.

학교의 나무가 무럭무럭 나라면
우리의 꿈도 무럭무럭 자란다.

추운 겨울 우리학교의 꽃은
언니, 동생 사이좋은 함박웃음 꽃

웃음 넘치는 우리학교
행복이 가득한 우리학교



중 등 부



나의 추억이 가득한 곳, 재래시장

상장중학교 1-3

홍수연

나는 재래시장을 좋아한다.

대형마트도 좋지만, 인정이 넘치는 재래시장을 더욱 좋아한다.

그런 나에게 있어 ‘황지자유시장’은 꿈과 같은 곳이었다. 내가 원하던 재래시장이니 말이다. 복잡복잡 사람들이 가득한 풍경과 시장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 아저씨를 만나는 재미도 가득하여, 늘 재래시장을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곤 한다.

그래서 나는 재래시장에서 만든 몇 가지 추억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 큰댁에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 때면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가셨다. 그럼 난 엄마 손을 꼭 잡고 따라갔다. 큰엄마께서 자주 들리시는 가게에 가면 내 손에 사탕을 한 움큼씩 쥐어 주시던 인정 넘치시는 아주머니. 그 때 먹었던 누룽지맛 사탕, 멜론맛 사탕, 자두맛 사탕은 아직도 나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정,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일깨워 주는 좋은 체험학습이었다.

또 다른 추억으로는, 재래시장에 가면 들었던 호칭이 있다. 내가 엄마와 시장을 가면 할머니들께서는 “어, 왔어~”하면서 친근하게 다가오셨다. 그분들은 우리 집의 주소나 아빠의 성함을 빗대어 엄마를 부르셨고, 내게는 “첫째지? 많이 컸구만~”하시면서 나를 부르셨다. 그럼 나는 씩 웃으면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어른께 지켜야 할 예절과 사람들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좋은 경험이었다.

다른 추억으로는, 재래시장을 거닐며 신기한 것들을 엄마께 물어보던 것이 있었다.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하던 때, 나는 시장 이곳 저곳에 있는 수많은 것들의 이름을 물어보곤 했다. 그럼 엄마께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답해주셨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며 까르르 웃었고, 미끈미끈한 오징어를 보면서 신기해했다. 재래시장에서 보고 알게 된 수많은 것들은 학교에서 “야! 저거!”하면서 나를 즐거운 과학의 세계로 인도했다.

마지막으로, 호떡 할머니가 계시다. 약국 건너편에서 겨울마다 호떡을 팔던 할머니. 그 때 내가 먹었던 호떡은 정말 맛있었다. 본래도 호떡을 좋아하지만 말이다. 작년 추운 겨울에, 엄마께서 나와 동생을 호떡 할머니에게 맡기고는 장을 보러 가셨다.

그 때 할머니께서 종이컵에 담아주신 호떡을 호~호~불며 먹었었다. 잠시 후, 엄마가 오셔서 할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했고, 몇 개의 호떡을 더 사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절로 웃음이 난다.

재래시장은 커다랗지만 싸늘한 대형마트보다 훨씬 아늑하면서도 따뜻하다. 마음놓고 우리를 맡기고 장을 보시고, 우리는 보호 속에서 즐겁게 ‘살아있는 공부’를 했다. 게다가 추억도 가득 만들고 말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없을, 이런 인정넘치는 재래시장이 태백에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 그런 태백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

요즘은 커다란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인정 넘치는 재래시장은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익보다 정을 더욱 추구한다면 재래시장이 더욱 좋지 않을까? 박복한 세상이라지만 재래시장에서 느끼는 정은 살면서 꼭 느껴봐야 할 것 중 하나이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이익과 정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지에 대해서는 태백 시민들은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친구를 만들어 준 소중한 태백

상장중학교 3-2

이 지 현

학교를 마친 지은이의 신발 굽 소리가 힘이 들어 보인다.

오늘 엄마에게 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지은아~ 오늘 3년 만에 서울에서 고모네가 온다네?”

지은이는 잠시 시큰둥한 표정을 짓다가 고모네에 있는 동갑내기 유나가 생각났다.

“아~ 그럼 유나도 와?”

“응, 당연하지.”

동갑내기 친구가 와서 기뻐할 줄 알았던 지은이의 표정은 정반대로 뿔로통해진다.

그 이유는 유나보다 생일이 6개월 느린 지은이는 고모네한테 유나를 언니라고 부르는 걸 명절 때마다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한숨을 푹 내쉬며 대문을 여니 방금 도착한 고모네가 반갑게 맞아준다.

지은이는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하다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유나가 보인다.

지은이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니 뒤에서 점심 먹으러 간다는 말소리가 들린다.

태백에서 한우만큼 인기있다는 닭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유나가 지은이 옆으로 앉는다.

닭갈비를 시켰는데 샐러드까지 나오니 고모네가 신기해하며 “역시 강원도, 그 중에 태백이 인심이 좋네”라고 말씀하신다.

지은이의 눈 앞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큰 불판 안엔 라면과 우동사리가 맛깔나게 끓고 있다.

고모가 놀라며 “어머, 이 집 닭갈비는 국물이 있네.”라고 말한다.

춘천 닭갈비만 먹어봤지 태백 닭갈비는 처음 먹어보고 더 맛있다고 엄지 손가락을 드시며 고모네는 계속 그릇을 비우셨다.

그래서 푸짐한 인심을 알 수 있던 불판도 금새 바닥을 보여서 공기밥과 고소한 참기름과 김가루를 넣고 볶음밥을 볶았다.

그 모습을 보니 지은이는 목구멍으로 침이 꼴깍 넘어갔다.

지은이가 볶음밥을 먹고 나중엔 누룽지까지 만들었다. 옆을 보니 유나도 누룽지를 먹으려고 쓱쓱-싹싹-굽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누룽지를 모두 다 먹고 식혜가 나왔는데 그것까지 다 마시니 모두 잘 먹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다음으론 근처에 있는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내 중심에 연못이 있다는 것에 고모네는 신기해했다.

황지연못에 들어서자마자 동상에 관한 전설을 얘기해주었다.

옛날에 산 스님이 황지 연못의 자리였던 황부자의 집으로 시주를 받으러 오자 황부자가 처음엔 시주대신 쇠똥을 퍼 주었다. 이것을 본 며느리가 스님에게 잘못을 빌며 쇠똥을 털고 쌀 한 바가지를 시주하자 스님이 “이 집의 운이 다하여 곧 큰 변고가 있을테니 살려거든 날 따라오시오.”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오.”라고 말했다.

며느리가 노승의 말을 듣고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도계의 산 등에 이르자 갑자기 집 쪽에서 뇌성벽력이 치며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 때 며느리는 스님의 말을 잊고 그만 뒤를 돌아보아 돌이 되었고, 황부자 집은 땅 속으로 꺼져 큰 연못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고 지은이가 얘기해주었다.

“저번에 이 전설 학교에서 들은 적 있는데! 정말 동상이 있네”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다리로 건너가니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물결을 가르며 헤엄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다리 밑에는 동전 던지는 곳이 있었는데 유나가 지은이에게 동전을 주며 “같이 던지자”라고 얘기했다.

지은이는 동전이 완전 동 떨어진 곳에 떨어져 안타까워하며 유나를 봤더니 유나의 동전은

정확히 명중하여 들어갔다.

유나는 기뻐하며 두 손을 모으더니 소원을 빌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라고 지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비밀!”이라고 유나가 말했다.

지은이는 “치사해”라고 연신 반복하며 유나와 고모네와 함께 검룡소로 차를 타고 갔다.
검룡소로 가니 우리나라 화석의 현장들이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다.

유나는 매우 놀라워하며 “이거 과학책에서 봤던건데! 진짜 신기하다!”라고 말했다.

지은이도 감탄하며 “나도”라고 말했다.

이제 유나가 사는 서울에 있는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에 있는 물줄기를 보러 갔다.
등산로를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 지은이의 키보다 몇 배는 더 큰 나무들이 주변에
빹빹하게 서 있었다.

바람이 불면 서늘서늘 흔들리는 나무를 지은이와 유나는 보며 자신까지 시원해졌다.

올라가다가 유나는 잠깐 멈춰서서 “와~”라는 탄성을 내뿜었다.

지은이는 ‘왜?’라고 물어보려고 하며 강 쪽을 바라봤는데 지은이도 이내 이유를 알겠다는
듯이 “와~”라고 똑같이 탄성을 내뿜었다.

그 둘은 청초하고 푸른 빛깔의 물줄기에 매혹되었다.

더 바라보면 그 아름다운 모습에 빨려들 것 같아서 유나와 지은이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둘은 올라가서 같이 “야호”라고 외치고 그 메아리 소리에 서로 재밌어했다.

그 후에 내려오는데 유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내 소원은 다음 방학에 또 태백에 왔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지은이도 처음에 유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걸 미안해하며 “나도 네가 꼭 왔음 좋겠어!”
라고 말했다.

둘은 손을 잡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며 햇빛을 바라보았다.

I Love Taebaek

상장중학교 3-2

김 효 정

나는 16살이다. 16년 동안 강원도 태백시라는 곳을 떠나서 살아본 적은 없다.

그리고 나는 태백을 떠나고 싶다거나 태백에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던 적은 없다.

태백의 좋은 점은 너무 많다.

일단 나는 태백의 자연이 제일 자랑스럽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눈이 침침할 때가 많은데 창문 밖을 보면 푸른 산이랑 하늘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푸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태백의 산과 하늘과 같은 경치를 보려면 여러 시간을 차를 타고 교외로 나가야 한데, 우리는 고개만 살짝 들어 보기만하면 다 그림같은 풍경이다. 게다가 공기도 맑고 여름밤의 열대야 같은 건 있지도 않을 만큼 시원해서 좋은 태백이다.

그리고 나는 태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연탄’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의 직업이기도 하고, 옛날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광부들은 하루하루가 위험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너무 위험하진 않을지... 너무 힘드시진 않을지... 아빠가 아프실 때가 제일 불안하다.

다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지만 아빠는 항상 건강히 집에 오신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마음을 놓는다.

아빠에게 “아빠! 왜 위험한 석탄공사를 다니세요?”라고 여쭙 보았더니

아빠께서 “네 고기 먹이려고 다닌다!” 이러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하나 때문에 태백

에서 16년 동안 석탄공사를 다니신 아빠가 멋있었다.

나는 우리 아빠가 제일 존경스럽다. 월급을 받으시면 외식을 가고, 갖고 싶은 것을 사 주신다.

그만큼 힘든 광부 일을 하시면서 자식들을 위해 돈을 버시고 엄마와 싸우지도 않는 자랑스러운 광부 우리 아빠가 태백에서 최고다!

그리고 태백에서는 계절마다 행사를 한다.

봄엔 철쭉제, 여름엔 쿨 시네마 페스티벌, 가을엔 태백제, 겨울엔 태백산 눈축제.

정말 계절마다 재미있는 축제를 해서 좋다.

그리고 신기한 건 질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1년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계절행사인데 매년마다 이벤트가 바뀌어서 그런지 정말 정말 재미있는 이런 축제들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뿌듯하다.

그리고 태백의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다.

내가 태백에 계속 살아가 아니라 우리 고모도 태백음식이 최고라고 하였다.

태백은 고랭지 채소와 감자, 옥수수가 최고로 맛있는 대표음식이다.

1박 2일팀도 고랭지 채소를 주제로 태백의 자연과 특산물을 카메라에 담아갔다.

태백의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에 채소와 곡식도 더 맛이 있는 것 같다.

태백은 차츰 변화하고 있다. 레저 스포츠의 도시로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석탄박물관, 태백산, 오투리조트, 풍력발전소 등 태백을 홍보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옛날에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 태백을 찾아왔다고 한다.

제일 마지막으로 갈 곳이 없어 선택한 곳이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광, 레저 생활을 하기 위해 찾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공기 좋고, 사람들 인심 좋고, 친절한 태백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참 뿌듯하고 태백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살기좋은 태백을 영원히 지키고 발전시키려면 지금보다 더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단합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소중하게 지켜온 태백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보살피어 우리 후손에게 더 좋은 환경으로 되돌려 주어 우리나라에서가 아닌 세계에서조차 찾아오는 관광의 도시 태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찾아가는 도시 태백, 아름다운 도시 태백, I Love Taebaek 파이팅!!





우리 집

태백중학교 2학년

조재웅

우리 마을은 약 1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모두 태백산재병원에서 제공하는 사택이다. 우리 집은 평범한 집은 아니다. 다른 집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예전 우리 집 터는 과수원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집 주위에는 황도와 백도나무, 뽕나무, 살구나무, 배나무, 앵두나무, 호두나무 등. 여러 가지 과일나무가 많다. 살구나무는 집에서 큰길로 나가는 곳에 있는데 전국을 다녀 보신 어떤 버스 기사 아저씨 말로는 가장 큰 나무라고 한다. 하지만 큰 덩치에 비해 열매는 그다지 많이 열리지 않는다. 그 대신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살구나무를 보면 할머니가 떠오른다.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일보다 가족들을 챙기는 데 관심이 더 많으시다. 할머니께서는 해마다 뽕나무 열매인 오디로 술을 담가 삼촌과 고모네와 나눠드신다. 나도 어른이 되면 마셔보고 싶다.

그 외에도 복숭아나무, 산딸기나무 등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많아서 열매나 나무 종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열매로 여러 가지 과즙을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다. 매번 과즙을 만들 때마다 더욱 맛있게 만들기위해 노력하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는다.

집 주위에 나무가 많아서 가장 좋은 점은 계다가 상쾌한 공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도시에서 사는 친척들이 명절 때 집에 찾아오실 때마다 공기가 참 좋다고 하신다.

우리 가족이 살기에는 집이 좀 큰데 미니어처처럼 현재 두 채를 사용하고 있다. 원래 창고는 없었지만 몇 년 전 아빠가 만드셨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A-7호는 바람이 잘 들어와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 없고 A-7호보다 안쪽에 있는 A-6호는 7호가 바람을 막아주어 겨울에

따뜻하다. 6호, 7호 각각 창고를 만들었는데 7호의 창고 구조가 약간 특이하다. 창고를 통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통로뿐 아니라 대나무(오죽), 연탄, 술등 여러 잡동사니가 한데 모여 있다. 한달에 한번씩 정리를 하지만 정리정돈을 미루면 금방 발도 못 디딜 정도이다. 깨끗해진 창고를 보면 참 뿌듯하다.

집 뒤로 돌아가면 가까운 곳에 야산이 있는데 철조망으로 막아서 입산통제가 되어있다. 삼엽충 화석이 많이 발견되어 도난을 방지하려는 것이라 한다. 가끔 집주위에서 작은 화석들을 찾아볼 수 있다. 마당에서 현관으로 들어올 때 문을 두 번을 열고 들어온다. 이것도 아빠가 만드신 것인데 안쪽 문이 맘에 안 드셨는지 가장 바깥쪽에 문을 하나 더 만드셨다. 이젠 익숙하지만 밤에 이동할 때 아직까지도 불편함이 없지 않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양쪽에 언덕길이 있다. 가끔 반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올 때 집을 못 찾는 경우가 많다. 아마 언덕길에 서있는 벚나무에 가려 집이 잘 안보이기 때문이다. 집을 못 찾는 친구들과 전화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면 그제야 친구의 모습이 보인다. 나름 재미도 있고 국어시간에 나오는 설명방법을 찾는 문제를 푸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의 특별한 점을 설명하였다.

나는 나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위의 영향을 받아 내 성격과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나무와 꽃과 바람과 햇빛은 나를 키워주었다. 이 글을 쓰면서 나를 어릴 적부터 잘 보호해 준 우리 집이 고맙다.





고 등 부

자랑스러운 태백의 아버지, 광부

장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손 선 진

요즈음 ‘막장드라마’, ‘막장인생’ 이라는 유행어가 퍼지며 인터넷, TV, 신문 등에 자주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수식하는 ‘막장’의 원래의 뜻은 광산, 특히 석탄광산 등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광산의 끝 부분을 말한다고 한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광부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광산 깊숙한 곳에 탄을 캐러 들어가는 곳이다. 이 말의 뜻이 변하여 오늘날에는 ‘갈 때 까지 간 상태’ 정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막장’의 의미를 알고 나서 바로 나의 아빠 생각이 났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백 대한 석탄 공사에 다니시는 우리 아빠는 우리 가족을 책임지시기 위해 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탄을 캐러 어둡고 더운 곳으로 들어가신다.

어렸을 적, 땀에 젖고, 검게 얼룩진 마스크와 옷들을 깨끗이 빨기 위해 종종 가져오시고, 날마다 허리가 편찮으시라며 작은 주먹으로라도 안마를 해드리면 좋아 하셨던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아파졌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막장드라마’, ‘인생막장’ 등의 단어를 쓰며 재밌게 떠드는 글이 나는 결코 재밌어 보이지 않은 않았다.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이지만, 그 뒤편엔 우리아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탄을 캐러 굴에 들어가시는 자랑스러운 아버지들이 검은 땀을 흘리고 계신다.

물론, 지금은 ‘막장’의 원래 의미는 사라졌지만, 조금이라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우리 아버지들의 땀과 노력을 한번이라도 생각하고,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태백을 소개합니다.

장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 미 영

태백은 참 자랑거리가 많다. 산이 많은 것도 자랑이고 하늘이 아름다운 것도 자랑이다. 사람들이 정이 많은 것도 자랑이고 이곳저곳 아는 사람 많아 좋은 것도 태백이다. 물론 없는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다. 우뚝 솟아 하늘을 위협할 것 같은 고층빌딩도 태백엔 없고 서울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조차 태백엔 없다. 하지만 회색 빌딩이 자연을 잡아먹고 있는 다른 곳과 달리 태백에는 자연이 있다. 자연과 함께 살아 숨 쉬는 태백이 있다.

고원 관광 도시 태백,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 태백은 관광할 곳이 참 많다. 태백산은 등산인도 많이 찾는 곳으로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꼬박꼬박 1년에 한번 씩은 올랐던 곳이다. 한발 한발 힘겹게 내딛은 발걸음이 정상에 도착했을 때 나를 맞이하는 주위에 만개한 철쭉들과 시원한 바람은 오르느라 흘렸던 땀과 더위를 식혀준다. 태백의 자랑인 3대강의 발원지는 태백에 왔다면 꼭 한번 가봐야 한다.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와 한강, 낙동강, 오십천의 분수령인 삼수령 그리고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은 직접 찾아가 보는 것만으로도 한국을 알아가는 교육적 의미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밖에 태백의 역사인 석탄박물관과 근처의 용연동굴 또한 태백의 관광명소이다. 용연동굴안의 리듬분수는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매봉산의 풍력발전단지 또한 볼거리로 거대한 하얀 바람개비가 유유히 바람을 느끼며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태백의 축제들은 정말 특별하다. 봄이 되면 태백산의 아름다운 철쭉을 감상할 수 있는 철쭉제가 열린다. 5월말의 시작하는 이 축제는 사진전과 산신제, 등반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곁들여 철쭉제가 더욱 흥겹도록 한다. 이렇게 철쭉제가 끝나고 무더운 여름날이 오면 태백에는 여름축제, 쿨 시네마가 열린다. 분명 무더운 여름이건만 밤에는 시원한, 심지어 시원하다 못해 추운 태백만의 특이함이 묻어나는 축제임이 틀림없다. 야외에서 대형 스크린에 영화를 상영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웃고 즐기면서 어우러지는 멋진 만남의 장이 된다. 붉은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 지나가고 눈이 펄펄 내려 무릎까지 쌓이는 겨울이 되면 태백에는 눈꽃축제가 열린다. 이 눈꽃축제야 말로 태백의 자랑이다. 눈이 많이 내리는 태백이라 얼음조각을 전시하기도 하고 다양한 게임과 대회를 열기도 한다. 황지연못에 얼음조각을 설치해 지나는 이의 눈을 즐겁게도 하며, 눈을 이용한 다채로운 행사는 하루쯤 꼭 참가하게 만들 정도이다.

중학교시절 오며가며 보던 산의 절벽이 비가 오는 날이면 웅장하게 쏟아지는 하나의 아름다운 폭포로 변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인가? 했지만 그곳은 이미 ‘비와야폭포’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었다. 비가 와야 폭포가 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 ‘비와야폭포’였다. 매년 가을철 철암을 지날 때마다 시선을 빼앗는 아름다운 붉은빛의 단풍은 ‘이것을 매년 볼 수 있는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만든다.

태백의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시작된다. 관광명소들 또한 대부분 자연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태백의 축제 역시 자연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져 모든 이에게 관심 받아왔고 사랑받아왔다. 이것들 모두는 자연이 태백에게 준 선물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한다. 고층의 높은 빌딩은 나에게 위압감을 주었지만 태백의 자연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이곳 태백은 말 그대로 자연이 있는 곳이다. 나를 감탄하게 만들고 넋 놓고 만드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태백이 나는 참 좋다.

더위

장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배 선 아

푹푹 찌는 여름 무더위
하지만 태백 하늘 아래엔
산들산들한 여름 바람이
우릴 맞이하고

주룩 주룩 흐르는 땀방울
태백의 밤공기에선 서늘한
공기가 우리의 몸을 에워싸네

한 여름 무더위
숨바꼭질 놀이처럼 꺾꺾
숨어버렸네.



초여름의 편지

장성여자고등학교 1-6
이 서 원

Dear. 밀린 업무에 올해도 휴가를 포기한 당신에게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작년 이맘 때 즈음엔 전 중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은 당신은, 작년 이맘 때 즈음 뭘 하셨나요?

올해도 작년처럼 바쁘기 만한 일상을 보내느라 숨통도 제대로 못 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조심스레 편지를 띄워 봅니다.

혹시라도 여행 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떨런지요?

급한 계획에 목적지조차 정하지 못했다면 제가 살고 있는 이 고원의 도시 태백을 당신께 추천하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이 도시를 설명하려면 편지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정감 있는 당신이기에 끝까지 잘 읽어 주실 거라 믿고 서둘러 이어가겠어요.

먼저 태백은 당신도 잘 알고 있다시피, 고랭지 채소와 탄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석유산업의 발달로 이미 많은 탄광이 폐쇄되었고, 얼마 남지 않은 광부들의 일터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석유의 대중화에 의해 더 이상 태백은 탄광으로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탄광을 대신해 들어선 여러 가지 관광 산업에 다시금 희망을 걸러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결과도

좋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글에서 당신에게 알려드릴 것은 당신이 태백에 왔을 때 가볼만한 여러 관광 명소들과 허가질 때 먹으면 더 맛있는 여러 먹거리들입니다.

처음으로는 태백산맥이 자리한 만큼 잘 알려진 태백산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태백산은 암벽이 적고 경사가 낮아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오를 수 있으며, 또 정상에는 옛 왕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인 천제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사계절 각각 다양한 경치를 맛볼 수 있는 태백산은 봄에는 붉게 물든 산을 볼 수 있는 철쭉제가, 여름엔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운 산에서의 쿨 시네마축제가 우리의 감성을 깨우고 있어요.

그리고 가을엔 사라져가는 전래 민속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태백제가, 겨울엔 설경의 눈 축제와 해맞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계절에 오셔도 태백산은 당신을 웅장한 모습으로 맞아주지 않을까요?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할 곳은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과 검룡소입니다.

먼저 황지연못은 우리 태백시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연못 중심에 돌이 된 머느리가 아기를 업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전해오는 민담에 의하면, 오래 전 심성이 고약한 시아버지가 노승에게 똥을 시주하자 심성이 착한 그의 머느리가 쌀을 한 되 퍼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승은 머느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만 들고 집을 당장 떠나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머느리는 꺾음을 내며 집이 내려앉는 그 엄청난 소리에 그만 뒤돌아보게 되어 결국 아기와 함께 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숲에 둘러 싸여 있는 듯한 이 황지연못은 상지, 중지, 하지로 구분되며, 이곳에서 솟아나는

물은 드넓은 영남평야를 흐르게 됩니다.

민담에 따르면 상지는 집 터이고, 중지는 방앗간 터, 하지는 화장실 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는 특이하게도 물이 암반을 뚫고 흐르는 계곡으로, 하루 동안 약 2~3천톤의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흐른 물줄기 때문에 폭 파인 그 암석이 꼭 용트림과 흡사하다고 하는데, 한강을 거쳐 올라온 이무기가 이곳에서 용이 되기 위해 수업을 하려 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던 자국이라고 합니다. 사계절 동안 9℃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이 검룡소는 암석에 물이끼가 자라고 있어 신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지연못과 검룡소는 가장 푸르른 봄에 오시기를 저는 권해봅니다.

빼놓을 수 없는 태백의 관광지 중 하나인 석탄박물관, 이곳은 그동안의 우리 태백의 역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의 생활상과 석탄의 변천사와 역할 등 탄광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교육적 가치가 높은 곳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1997년에 개관된 석탄박물관은 8실 5개소 안에 주제가 각각 다른 8가지의 내용을 전시하고 있으며, 당신이 직접 탄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당신께서 태백을 관광하는데 그치지 않고, 태백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석탄박물관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태백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매월 5일, 15일, 25일에 열리는 통리장이지요. 이 오래된 재래시장에 각지에서 올라온 물건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옷에서부터 해산물까지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사를 하시는 터라 인심도 훈훈하고 먹거리 또한 푸짐하며 활기찬 에너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바로 먹거리입니다. 먼저 우리 태백의 대표적인 음식인 감자 수제비, 일반 수제비와 달리 우리 감자 수제비는 깔끔한 맛과 고소함이 일품인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태백에서 자란 태백 고유의 분위기를 풍기는 한우 또한 대표적인 먹거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몸에 좋은 유기농 식품들은 그냥 삶아 먹어도 매우 맛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소개할 태백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느니만 못한 것이 글이겠지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꼭 태백을 한 번 방문한 후에 제게도 답 편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지역 중 제가 당신께 태백을 추천하는 이유는 물론 제가 태백 사람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이 태백의 장관을 당신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태백의 문은 당신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당신의 좋은 결정을 기다리며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From. 좋은 소식이 담겨 있는 답 편지를 기다리는 당신의 친구



2010 꿈나무작가공모전

발행일 • 2010년 9월 10일

발행인 • 김강산

발행처 • 태백문화원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상장동 210-9

전 화 • 033)553-3160~1

팩 스 • 033)553-2977

홈페이지 • <http://www.taebaekculturalcenter.com/>

디 자 인 • 인쇄 문성사

| 비매품 |

이 책은 태백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10

꿈나무작가 공모전
수상 작품집